

2023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 자동차 | 철강 | 조선·해운
정유·화학 | 에너지·유틸리티 | 제약·바이오 | 건설 | 항공 | 관광
게임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유통 | 식품·외식 | 패션 | 화장품
은행 | 증권 | 카드 | 생명보험 | 손해보험

December 2022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 02-2112-6744

E hyojungle@kr.kpmg.com

김규림

이사

T 02-2112-4089

E gyulimkim@kr.kpmg.com

박도휘

수석연구원

T 02-2112-0904

E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T 02-2112-3973

E sookyoungki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I

2023년
산업 기상도
Snap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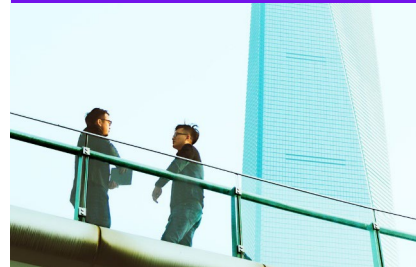
II

2023년
산업별 전망



III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IV

Appendix



2023년 산업 기상도 Snapshot



2023년 산업 전망 기상도

2023년 고물가·고금리 기조하에 국내외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 그러나 엔데믹에 따른 회복세 및 시장 외연 확대, 공급망 및 원자재 수급 불안 개선, 일부 업종 대기 수요 등으로 하반기 이후 업종별 수요는 소폭 개선 가능성 상존

산업	2023년 전망
반도체	 일부 부정적
디스플레이	 일부 부정적
휴대폰	 일부 긍정적
자동차	 일부 긍정적
철강	 일부 부정적
조선·해운	 일부 부정적
정유·화학	 일부 긍정적
에너지·유틸리티	 일부 긍정적

산업	2023년 전망
제약·바이오	 일부 긍정적
건설	 부정적
항공	 일부 긍정적
관광	 일부 긍정적
게임	 일부 긍정적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일부 긍정적
유통	 일부 긍정적
식품·외식	 일부 부정적

산업	2023년 전망
패션	 일부 부정적
화장품	 일부 긍정적
은행	 일부 부정적
증권	 부정적
카드	 일부 부정적
생명보험	 일부 부정적
손해보험	 일부 긍정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반도체 》 수요 약화에 따른 공급 과잉 등으로 비관적 시장 전망 우세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4.1%의 성장률을 보이며 감소하여 5,56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전년대비 -17.0%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각 국의 반도체 자급력 제고를 위한 밸류체인 개편, 반도체 동맹 등의 행보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23년 글로벌 반도체산업 전망

지역	시장 규모(백만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23년
미주	121,481	142,138	143,278	27.4	17.0	0.8
유럽	47,757	53,774	54,006	27.3	12.6	0.4
일본	43,687	48,064	48,280	19.8	10.0	0.4
아시아·태평양	342,967	336,151	311,005	26.5	-2.0	-7.5
전체	555,893	580,126	556,568	26.2	4.4	-4.1

제품	시장 규모(백만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23년
개별 반도체	30,337	34,098	35,060	27.4	12.4	2.8
광전자	43,404	43,777	45,381	7.4	0.9	3.7
센서	19,149	22,262	23,086	28.0	16.3	3.7
IC	463,002	479,988	453,041	28.2	3.7	-5.6
- 아날로그	74,105	89,554	90,952	33.1	20.8	1.6
- 마이크로	80,221	78,790	75,273	15.1	-1.8	-4.5
- 로직	154,837	177,238	175,191	30.8	14.5	-1.2
- 메모리	153,838	134,407	111,624	30.9	-12.6	-17.0
전체	555,893	580,126	556,568	26.2	4.4	-4.1

Source: WSTS('22.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각 지역에서 판매되는 반도체 매출 기준 반올림으로 인해 소계 및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01 '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4.1%로 역성장하여 감소 전망

- WSTS(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에 따르면, '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5,566억 달러로 예상됨.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 감소가 전체 시장 규모 감소에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 시장의 비관적 전망은 급격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WSTS는 '22년 8월 발표에서 13.9%로 전망하였던 '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1월 발표에서 4.4%로 급격히 낮춘 바 있음

02 [메모리 반도체] 낮아진 가격 탄력성으로 공급과잉 해소 어려움

- 글로벌 IT 시장의 수요 약화에 따라 '23년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17.0% 수준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주요 전방 상품군 중 가격 탄력성이 높은 컴퓨터 시장이 비교적 탄력성이 낮은 스마트폰·서버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

03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품귀 현상 일부 해소 전망

-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IT 수요 약화 영향으로 '23년의 성장세가 '22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해외 주요국의 파운드리 공장 유치 등 자국 내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지원 활동, 반도체 동맹 칩(Chip) 4 등의 국제 정세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성장 확대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디스플레이 》 중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와 한국 수출 부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1년 팬데믹에 따른 IT 기기 수요 증가로 LCD·OLED 시장이 모두 성장했지만, 2022년부터 코로나와의 공존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판매로 인한 기저효과로 하락세에 접어든 이후 2023년 시장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혁신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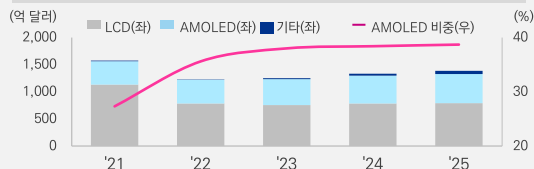
2023년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세 정체

AMOLED 비중 '21년 27.3% → '23년 38.0%

- 엔데믹을 바라보는 '22년부터 디스플레이산업은 다운사이클로 재진입. OMDIA에 따르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2년 1,228억 달러에 이어 '23년 1,248억 달러로 소폭 성장할 전망이다
- '23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LCD와 OLED의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
- LCD: LCD 공급 과잉 등에 따라 LCD 패널 가격의 방어가 어려워지며 삼성디스플레이는 '22년 상반기 LCD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TV 패널 생산라인을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
- OLED: 국내 디스플레이 세트 업체의 OLED 라인업 확대로 OLED 시장은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금액 기준)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기타에 Micro LED 포함, '22-'25년은 전망치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및 글로벌 M/S 확대

'22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중국 44.6%, 한국 33.0%

- 중국은 LCD 분야를 넘어 OLED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원재료, 부품, 설비 등에 지원을 확대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음
- '05년까지 중국의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는 주로 LCD 후공정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 뒤 '06년부터 BOE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의 LCD 관련 전공정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 대비 관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국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21년부터 한국을 앞지르며 전 세계 1위를 차지

국적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금액 기준)

국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중국	21.0	25.0	30.9	36.7	41.3	44.6
한국	44.4	42.6	40.4	36.8	33.3	33.0
대만	22.9	24.5	21.9	22.5	23.1	20.1
일본	10.8	6.7	5.9	3.6	1.9	2.0
기타	0.9	1.2	1.0	0.5	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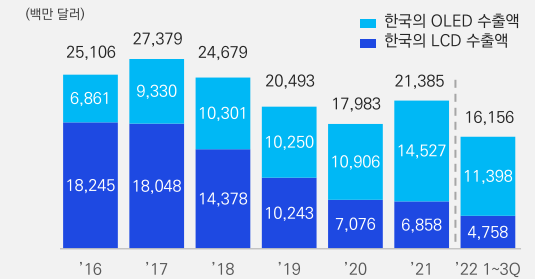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SHARP는 '17년 매출부터 대만 국적으로 포함

한국의 디스플레이 수출, 글로벌 경쟁 심화

'18~'20년 수출 감소, 차세대 혁신 기술 확보가 관건

-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OLED, LCD) 수출액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영향 등에 따라 '18년부터 '20년까지 역성장을 보임
- 이후 '21년 전년 대비 약 19%의 수출 성장을 보였던 가운데 '22년 수출은 OLED가 주도함
- 한국 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별 성숙도, 고객과의 관계,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스플레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며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 함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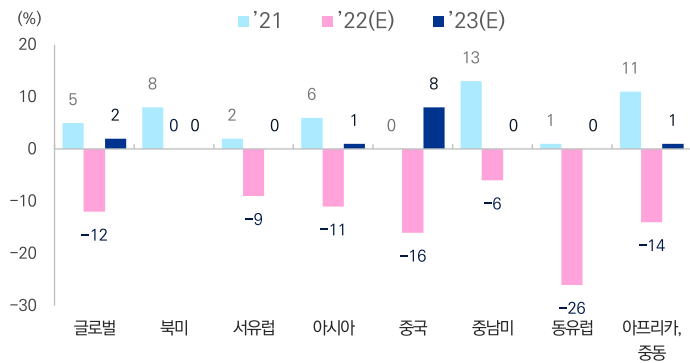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휴대폰 》 전체 수요는 기저효과로 소폭 상승, 신규 상품군 확대 기대

2023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의 기저효과로 인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 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 봉쇄 등의 수요 감소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폴더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규 상품군을 성장 동력으로 한 시장 확대도 기대됨

글로벌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량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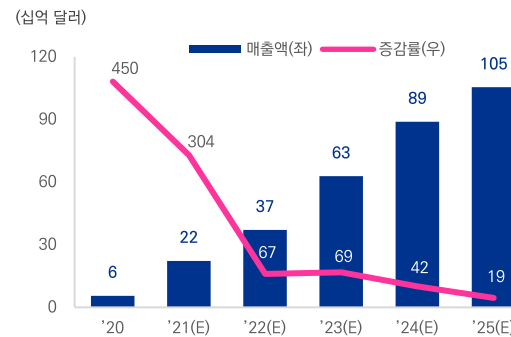


Source: 하나증권, Counterpoint Research
 Note: 각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E)는 추정치, 아시아는 중국 제외

- 시장조사기관 Counterpoint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3년에 전년대비 2%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장기 봉쇄와 동유럽 지역의 전쟁 등 국제 정세 영향으로 인한 중국·동유럽 지역의 감소세 영향이 높음
- '23년에는 주요 약재의 해소가 기대되며, '22년의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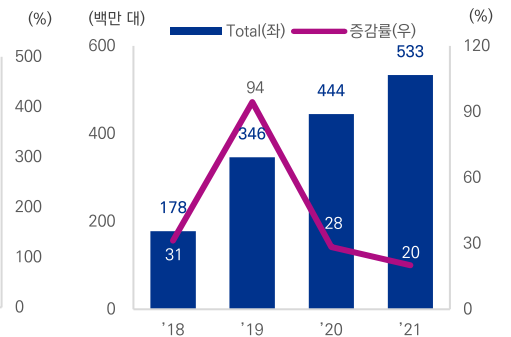
신성장 동력의 부상

글로벌 폴더블·롤러블 스마트폰 매출 전망



Source: Statista, Display Supply Chain
 Note: (E)는 추정치

글로벌 웨어러블 출하량 추이



Source: Bloomberg,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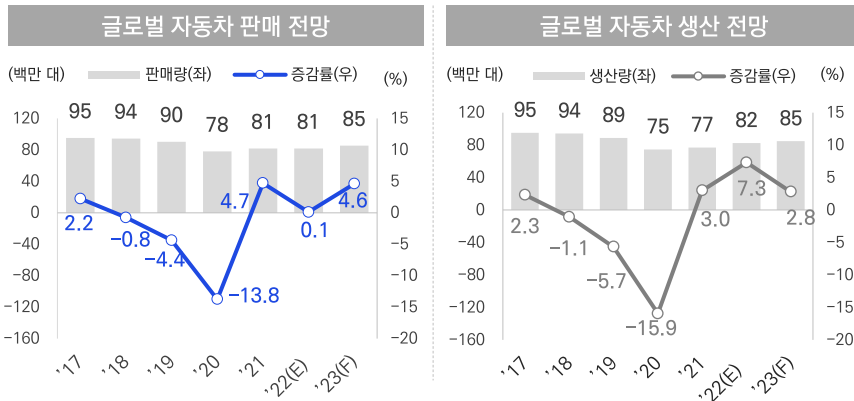
- '23년 스마트폰 시장은 폼팩터 혁신을 통한 폴더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침체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지속 출시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롤러블 스마트폰의 기술 개발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스마트 워치, TWS(True-Wireless Speaker) 등의 기존 웨어러블 디바이스 타입 상품의 시장 확대와 스마트 글래스, VR(가상현실) 디바이스 등의 신규 타입의 디바이스 출시에 힘입어 시장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견조하나 제한적 성장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등으로 발생한 대기 수요가 2023년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지속되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 정책, 러-우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2023년 자동차 수요·공급 전망



- '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4.6% 증가한 8,523만 대 전망
 - 누적된 대기 수요와 차량 공급량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팽배하여 자동차 판매량 성장은 제한적일 것
- '23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2.8% 증가한 8,475만 대 전망
 - '23년 글로벌 OEM 기업의 생산 순증량은 스텔란티스(77만 대), BYD(54만 대), 테슬라(32만 대),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32만 대)순으로 예상

Source: LMC('22년 12월 조회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2023년 자동차산업 주요 이슈

- 01 차량 대기 수요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견조**
 -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 수요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도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
 -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 정책, 러-우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제한적으로 성장 예상
- 02 국내 자동차 시장, 내수·수출 감소 전망**
 - '23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65.8만 대로 예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국내 자동차 수출량은 미국 시장 수출량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업에 대한 IRA 적용 유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만일, IRA 적용 유예를 받을 경우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03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가속화**
 - '23년 전기차(BEV, PHEV, FCEV) 수요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400만 대 수준으로 예상(LMC)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미 시장의 전동화 전환 움직임이 강화되었으며, 미국 OEM인 GM, Ford, 스텔란티스 등은 자체적으로 전동화 공급망 구축 중
 -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포함한 IRA 법안도 美 전기차 시장 성장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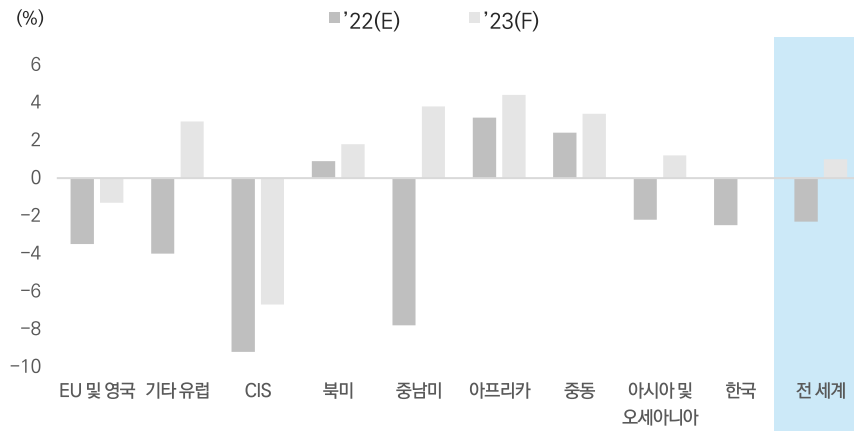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철강 》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주춤한 성장세

2023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미국 등 주요국 긴축정책, 중국의 저성장, 러-우 침공으로 인한 유럽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철강재 가격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산업의 넷제로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 '23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18억 1,470만 톤,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
 - 미국 등 주요국 긴축정책, 중국의 저성장, 러-우 침공으로 인한 유럽 경기 둔화 등으로 저성장에 그칠 것
- '23년 국내 철강 수요는 5,460만 톤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
 - 국내 물가 및 금리 인상, 조선업 제외 대다수 수요산업 부진 등 전반적 내수 여건 악화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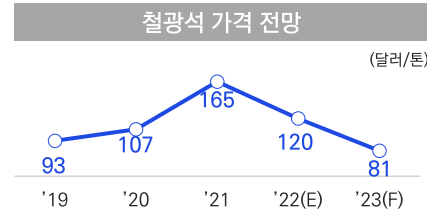
Source: 세계철강협회('22.10),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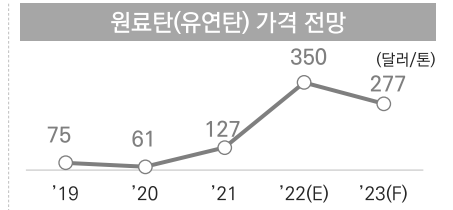
Note 2: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형성된 독립국가연합을 지칭

원재료 가격 전망 및 2023년 국내 철강산업 주요 이슈

철광석은 '21년 이후 하락세, 유연탄은 '22년 들어 급상승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 01 철강재 가격, 제한된 상승세 보일 전망**
 - 유연탄은 러-우 침공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가격이 급등한 이후 높은 수준 유지 반면, 철광석은 주요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조강 생산 부진으로 하락세 예상
 - 이에 '23년 철강재 가격은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제한된 상승폭을 보일 것
- 02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
 - 조선업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 수요산업(건설, 자동차)의 부진으로 수급 악화
 - 긴축정책에 따른 설비 및 건설투자 감소 영향으로 '23년 철강 내수 위축 전망
- 03 '그린철강'으로 넷제로 달성에 박차**
 - 기존 고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연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하여 탈탄소 이행 강화
 - 생산공정에서의 탄소 감축뿐 아니라, 친환경 강재 등 고기능 제품이나 탈탄소 솔루션 기술 제공을 통해 사회 전반의 넷제로에 기여 노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I. 2023년 산업별 전망

조선·해운》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 불가피, LNG선의 선전 기대

2022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대비 32.7% 감소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2023년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영향으로 발주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2023년 해운산업은 세계 경기 둔화, 고금리 기조, OPEC+ 감산합의 등에 따라 물동량 수요가 줄어듦 것으로 전망되나 환경규제에 따른 폐선 증가로 공급량이 조절될 전망

2023년 조선산업 전망

2023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및 한국 수주량 전망			
구분	'21년	'22년(E)	'23년(F)
글로벌 발주량 (백만 CGT)	52.0 (↑108.1%)	35.0 (↓32.7%)	22.0 (↓37.1%)
한국 수주량 (백만 CGT)	17.7 (↑98.6%)	14.6 (↓17.4%)	8.5 (↓41.8%)
글로벌 발주액 (억 달러)	1,160 (↑127.5%)	1,000 (↓13.8%)	610 (↓39.0%)
한국 수주액 (억 달러)	443 (↑127.1%)	385 (↓13.1%)	220 (↓42.9%)

Source: Clarksons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 '22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총 3,500만 CGT로 전년대비 32.7%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발주량이 LNG 및 컨테이너에 집중됨
 - 글로벌 총 발주량 중 LNG선 35.2%, 컨테이너선 33.2%를 차지 ('22년 1~11월)
- '23년 글로벌 신조선 시장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 영향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37% 감소한 2,200만 CGT로 전망
 - 다만, 카타르 관련 LNG 발주 등으로 LNG선 발주량은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의 신조선 수주도 감소할 전망. 다만 현재 국내 조선산업이 3년치 이상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고 '20년 말 이후 수주된 선박의 인도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조선사의 흑자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 수주 부진에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2023년 해운산업 전망

컨테이너



'23년 상반기까지 수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21년부터 이어진 컨테이너 선박 투자에 따른 인도량이 '23년 230만 TEU로 전망되며 공급은 수요를 크게 상회할 전망

벌크선



'23년 벌크선 시장은 세계 경기둔화와 고금리 기조에 의한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부진 예상으로 양호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환경규제에 따라 노후선 폐선이 증가함에 따라 선복량이 감소해 시장 강세 유지 예상됨

탱커



10월 초 OPEC+의 감산합의와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석유수요의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하지만 대러시아 제재로 선박의 운항거리가 증가하고 환경규제에 따른 폐선 증가로 선복량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강세 유지가 예상됨

LNG선



'23년 신규 공급될 선박이 기존 선복량의 약 7%에 해당하나 대러시아 제재 유지로 유럽의 LNG 수입 수요 지속, 미국 셰일가스 증산 전망으로 선복량 증가율을 능가하는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I. 2023년 산업별 전망

정유·화학 《 견고한 수익성 유지, 점진적 업황 회복 예상

미국의 원유 증산 계획으로 공급부족 해소, 국제유가 하락, 강달러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국내 정유사 수익성은 전년대비 축소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화학산업의 경우 2023년 하반기 이후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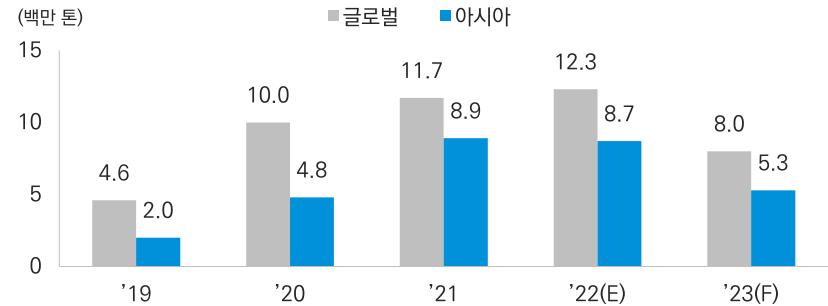
2023년 제품별 정제마진 전망

	(달러/배럴)				
	'19년	'20년	'21년	'22년(E)	'23년(F)
휘발유	6.4	2.8	9.6	14.9	8.0
경유	14.1	6.2	6.3	29.0	25.0
등유	14.1	2.4	7.3	33.5	29.0
중유	-5.7	-2.9	-4.5	-14.1	-15.0
나프타	-6.1	-1.6	1.9	-14.6	1.0

- '22년 러-우 침공,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과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정제마진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23년에는 원유 공급 증가, 유가 하락 안정세로 정제마진은 전년대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 OPEC+의 감산과 러시아 생산량 감소 등으로 '23년 상반기 수급 불균형은 확대될 수 있으나, 미국의 대대적인 증산 계획으로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 국내 정유사는 '22년 상반기까지는 정제마진 급등으로 고수익을 기록했으나, '23년에는 공급부족 해소, 국제유가 하락, 강달러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축소 예상
 - 다만 정제설비 순증 물량 제한 및 윤활기유의 견고한 수급 상황 지속으로 여전히 높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Source: 유진투자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2023년 에틸렌 증설 전망



- 글로벌 에틸렌 증설은 '23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순증설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급 밸런스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23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
 - '22년 예정되어 있던 순증설 계획이 일부 지연될 경우 반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 상존
 - 국내 화학제품 수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자급률 개선, 고유가 지속 가능성,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수입국의 규제 강화 가능성 등이 국내 업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 PE, PP 등 기타 화학제품 증설 규모도 여전히 큰 상황이나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가스 가격 급등으로 유럽 크래커 가동률이 조정되면서 수급 밸런스는 개선될 여지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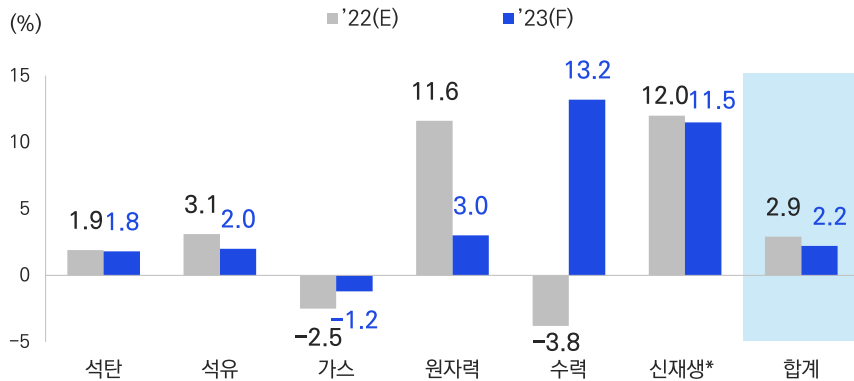
Source: 유진투자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에너지·유틸리티 《뚜렷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요 증가세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내 에너지 수요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정부의 강력한 보급정책과 신규 설비 진입 등의 효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견인하는 한편, 가스는 유례없는 높은 가격으로 수요 감소 전망

국내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23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320.9백만 TOE로 전년대비 2.2% 증가 전망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에너지 수요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과 원자력이 총에너지 수요 증가 주도, 가스 수요는 소폭 하락 전망
 - 정부의 강력한 보급정책과 신규 설비 진입 등의 효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 가스는 유례없는 높은 가격으로 수요 감소 전망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Note 2: TOE(Ton of Equivalent)는 모든 에너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단위인 석유환산톤

Note: *신재생에는 기타에너지도 포함

2023년 에너지원별 주요 이슈

구분	'23년 전망
석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7('22.10)에서 198개 당사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중단을 재확인하면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압박이 커질 전망 •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22.08)에서 석탄 비중을 대폭 감축한 21.2%로 설정한 만큼 국내 석탄 수요 둔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
석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92.0\$/bbl 수준으로 전망(World Bank).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꾸준한 생산 증가가 러시아의 생산 감소분을 상쇄하며 '22년 하반기 유가보다는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우 침공 여파에 따른 유럽의 LNG 수입량 증가로 아시아 LNG 가격은 '23년 17.0\$/mmbtu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World Bank) • 가격 변화에 민감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 감소 예상
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23년 국내 원자력 수요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81.6TWh 기록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원전 비중은 32.8%로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증가세 지속 전망
신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뉴딜 정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23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국내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561.2TWh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가전기기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 냉방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기인

Source: World Bank,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KPMG 재구성

II. 2023년 산업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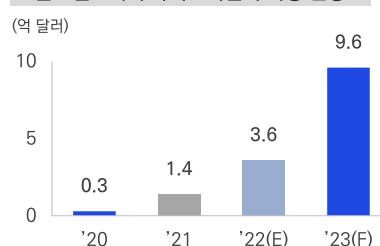
☀️ 제약·바이오 » 바이오시밀러 기회요인에도 산업 전반 성장세 둔화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가 만료되면서 K-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주요국의 우호적인 바이오시밀러 정책도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우 침공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 코로나19 안정세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세는 전년대비 둔화 전망

2023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 '23년 독점권이 실효될 블록버스터 의약품(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은 9건 예상,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국내 주요 기업들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 예정
 -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휴미라'(애브비 개발)
 - 안과질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바이엘, 리제네론 공동개발)
 -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존슨앤드존슨 개발)
-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주요국의 우호적인 바이오시밀러 정책으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3세대) 시장은 '23년 9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위탁생산 수주 증가 예상
 - EU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체 처방 공식화('22.09), 미국 의회의 바이오시밀러 상호대체처방 규정 완화 발의('22.11)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환경 조성

글로벌 3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기업	주요 파이프라인	주요 이벤트
삼성 바이오에피스	고농도 휴미라	미국 출시 예정 ('23년 7월)
	SB15(아일리아)	임상 3상 완료
	SB17(스텔라라)	임상 3상 진행 중
셀트리온	유플라리마(휴미라)	미국 출시 예정 ('23년 7월)
	CT-P42(아일리아)	임상 3상 진행 중
	CT-P43(스텔라라)	임상 3상 종료 및 결과 분석 진입
동아ST	DMB-3115(스텔라라)	임상 3상 종료 및 결과 분석 진입

Source: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2023년 제약·바이오산업 부문별 전망

- 바이오시밀러 등 기회요인과 함께 일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도 존재
 - (수출) 코로나19 회복세로 진단키트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공중보건 지원 확대로 백신·완제의약품 수출 증가 예상
 - (내수) 국가지원 무료 백신 접종의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백신·의약품 수요 증가 등 내수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나 코로나19 안정세 이후 개량백신 추가접종 및 진단키트 수요 감소세로 전년대비 성장률 둔화
 - (생산)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세와 블록버스터 항체 신약 등장이 예상되면서 국내 위탁생산 수주 증가가 예상되나, 미·중 갈등 장기화로 성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7.9% 전망
 - (수입) 자국 우선주의로 바이오의약품 원료·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가중,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전년대비 0.5% 감소

2023년 바이오 부문별 증감률 전망



Source: 산업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II. 2023년 산업별 전망



건설 》 국내 건설은 하강 국면으로 전환, 중동·ASEAN 해외수주 증가 전망

2022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23.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10% 이상의 정부 SOC 예산 축소와 조달 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전년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해외 건설의 경우 유가 상승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의 투자가 활발해져 2023년 수주 증가 전망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및 전망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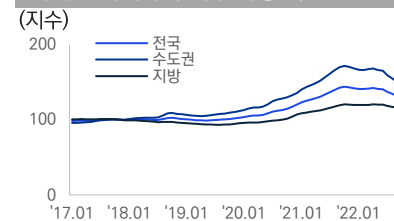
구분	'20년	'21년	'22년(E)	'23년(F)	증감률 ('23년 YoY)
공공	52.1	56.0	57.0	55.2	↓ -3.16%
민간	142	156.0	166.5	151.6	↓ -8.95%
토목	44.7	53.6	58.4	56.2	↓ -3.77%
건축	149.4	158.4	165.1	150.6	↓ -8.78%
주거	92.8	83.2	86.7	81.2	↓ -6.34%
비주거	56.6	75.1	78.4	69.4	↓ -11.48%

Sour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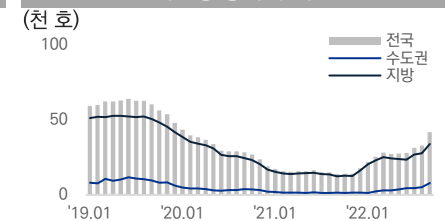
- '23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2년 보다 7.5% 감소한 206조 8,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발주 부문별로 공공수주는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토목 중심의 건설수주가 감소해 3.2% 감소할 전망이다이며, 민간수주는 9.0% 감소할 전망이다
-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는 각각 3.8%, 6.3% 감소할 전망이다이며, 비주택 건축 수주는 11.5% 감소할 전망이다

2023년 건설산업 주요 이슈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하강 국면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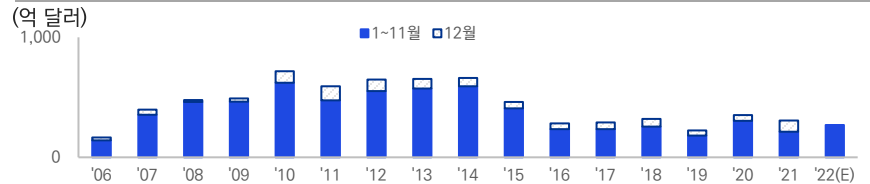


미분양 증가 추세



-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로 매매 가격 하향 조정 지속 및 월세화 가속
- '21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증가 추세로 전환했으며, '22년 상승추세 가속화

해외 수주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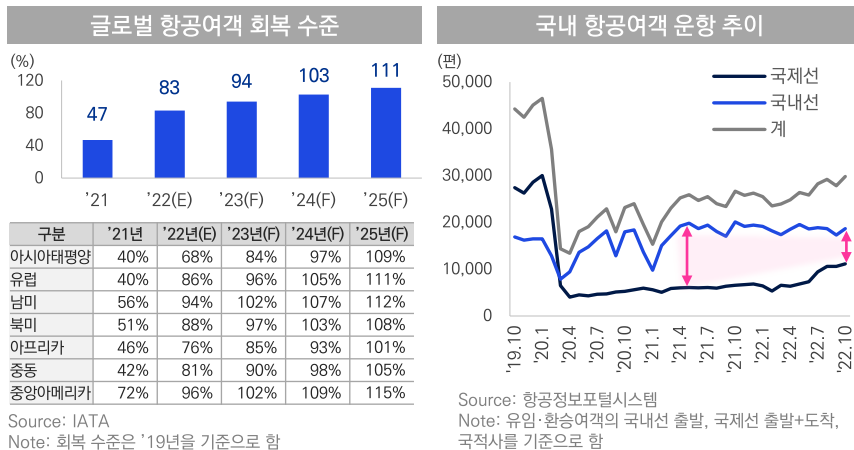
- '22년 11월까지 해외수주가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
- 유가 상승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향후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I. 2023년 산업별 전망

항공 《항공화물은 전년비 주춤, 항공여객은 국제선 중심의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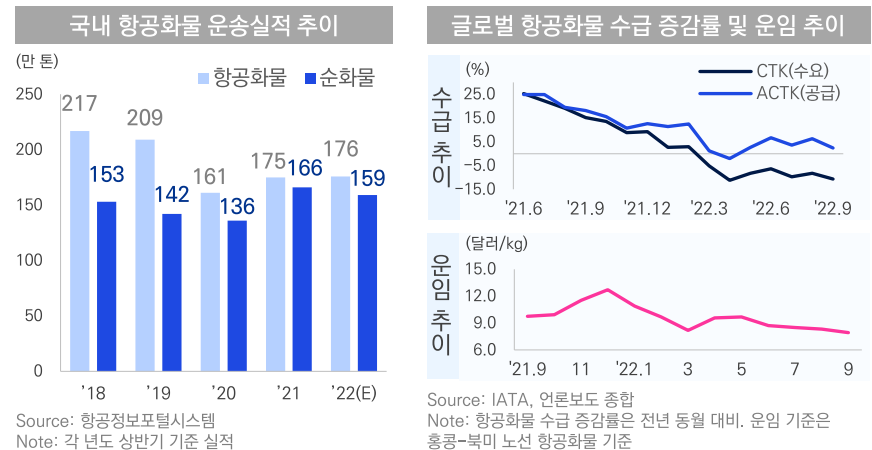
일본의 입국 제한 정책 해제 등 국가 간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중단되었던 여객 노선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항공여객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코로나19 기간 항공여객 대신 실적을 견인한 항공화물은 공급 대비 수요의 급감, 인플레이션, 해상운임 급락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다소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

항공여객산업 현황 및 전망



- '23년 글로벌 항공여객은 '19년 수요 대비 94% 회복할 전망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국가 간 여행 제한 조치 완화에 힘입어 글로벌 항공여객이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국제선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여객 수요 회복세
 - 국내로 집중되었던 여행 수요가 해외로도 분산되며,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여객의 운항 격차 축소. 특히 일본의 입국 제한 정책 해제, 중단되었던 국제노선 운항의 점진적 재개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 향후 국내 항공여객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 다란 교환율이나 고유가 등 실적 개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검토 필요

항공화물산업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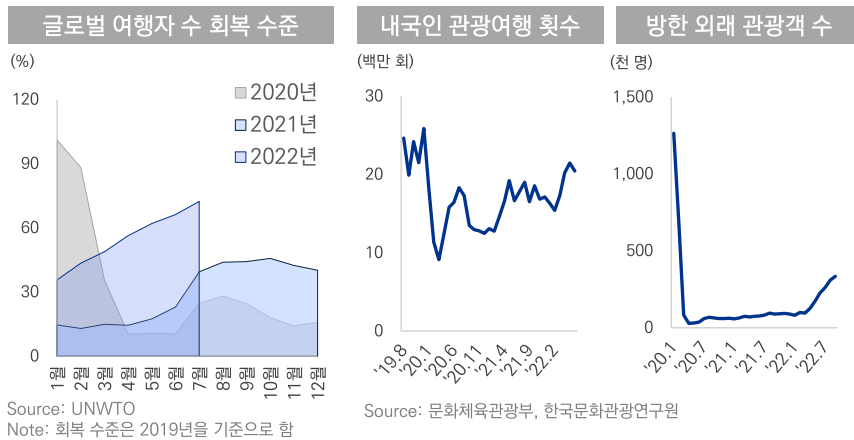
- '22년 국내 수화물 제외 항공화물(순화물)은 전년대비 4.2% 감소세
 - 국내 항공여객 회복으로 '22년 수하물 운송실적은 증가했으나, 순화물은 인플레이션, 중국 봉쇄조치, 해상운임 급락, 화물용으로 개조한 항공기의 여객기 전환 등 영향으로 감소
- CTK(수요) 감소와 항공화물 운임 하락으로 글로벌 항공화물 부진한 상황 예상
 -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도 글로벌 경기 하락 등에 따른 화물운임 수요 감소로 ACTK(공급) 대비 CTK(수요)의 감소폭이 더 높은 모습
 - CTK 감소와 함께 '21년 최고치를 기록한 항공화물 운임이 '22년 하락세를 보이며, 코로나19 기간 항공여객 대신 실적을 견인한 항공화물의 상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II. 2023년 산업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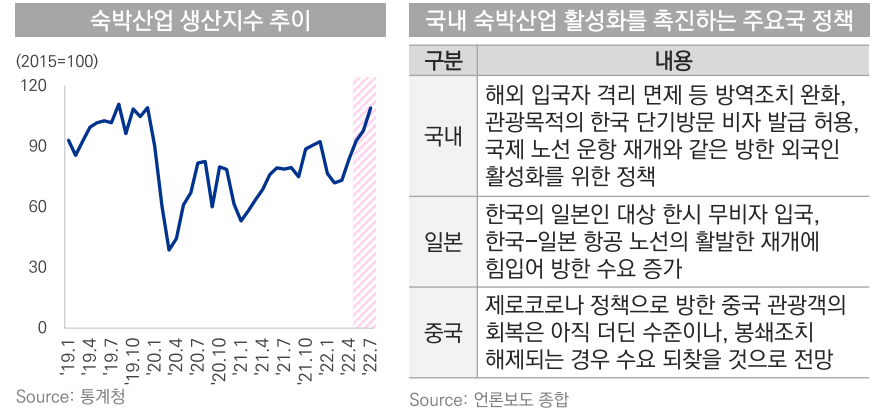
☀️ 관광 》 리오프닝에 본격 회복이 기대되는 관광·숙박산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에 힘입어 국내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또한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는 프리미엄 호텔 외 감성숙소나 카지노 혹은 가성비를 내세우는 중소형호텔 등 다양한 숙박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국내외 관광산업 전망



숙박산업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여행자는 '24년 이후 완전 회복 예상**
 - UNWTO(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며 '22년 상반기 글로벌 여행자 수가 '19년 동기 대비 평균 52% 수준으로 회복
- **국내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증가 및 내국인 관광여행 회복 기대**
 -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로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3년 내 관광 목적의 한국 재방문 의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23년 방한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민관협력 캠페인이 더해지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 지속
 - 내국인 관광여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등 변수로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실외 노마스크 정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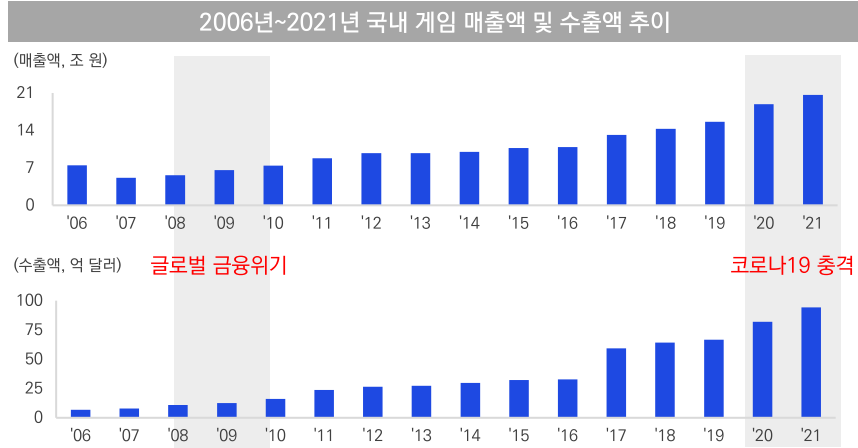
- **국내 숙박산업은 '22년 2분기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국내 숙박산업 생산지수(불변지수 기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시작된 '22년 2분기 기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22년 7월 109.1로 '19년 동월 101.7을 넘어섬
- **프리미엄 호텔 외 감성숙소 등 신형 숙박시설의 인기 전망**
 - 감성숙소(야외 식사가 가능한 마당 딸린 단독주택 스타일의 숙박시설)가 프리미엄 호텔의 호강스를 대신하여 촌강스, 워케이션 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로 부상 중
-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중소형호텔·카지노 등 숙박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특히 '22년 하반기 일본 항공 노선 재개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호황.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완화된에 따라 '23년 내 중국 VIP 수요도 되찾을 것으로 예상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게임 《 신규 대작과 콘솔 게임 및 장르 다양성 확대로 성장 모색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신규 대작 출시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다수의 게임사가 콘솔 게임을 출시하며 국내 게임산업 플랫폼이 더욱 다변화될 예상. 또한 서브컬처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여 장르 다양성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23년 게임산업 전망



- 경기 하강세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내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물가 상승, 지정학적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주요 경제 위기 시기에도 국내 게임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된 2009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17.4%, 13.4% 성장.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도 매출액 21.3%, 수출액 23.1%의 성장세를 보임
 - 비교적 경기 민감도가 낮은 게임산업 특성상 경기 하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강달러에 따른 해외 마케팅 비용 상승, 중소제작사 대상 투자 감소 등의 하방 요인도 일부 존재

Source: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3년 게임산업의 주요 트렌드

- 01 **국내 주요 게임사의 대작 다수 출시**
 - '22년 다소 부진했던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신작이 엔씨소프트('Throne and Liberty'), 넥슨('퍼스트 디센던트'), 넷마블('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카카오 게임즈('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등을 중심으로 다수 출시될 예정
 - 기존 글로벌 인기 게임 IP를 보유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한 AAA급 게임의 출시로 글로벌 흥행 및 시장 규모 확대 기대
- 02 **콘솔 플랫폼 진출 본격화**
 - 국내 주요 게임사는 신작 다수를 콘솔 게임으로 출시하거나 기존의 모바일·PC 게임을 콘솔로 재출시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예정
 - 장기적으로 게임과 VR/AR(가상·증강현실) 기술과의 접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 등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향후 PC 및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03 **서브컬처 게임의 주류화 등 장르 다양화**
 - '22년 중국 호오버스의 '원신',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등 서브컬처 게임의 흥행이 크게 부각
 -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단단한 팬층이 시장에서 확인된 만큼 향후 게임 기업의 장르 다양성 구현을 통한 수익화 모색의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현지화 및 수익 모델 다각화로 시장 확대

경기 하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영향이 일부 존재하겠으나,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며 콘텐츠IP(지식재산권) 수출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국내 기업의 콘텐츠IP 현지화, 대표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한 타 산업 진출 등으로 시장 외연 확대와 수익모델 다각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3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전망

분야	전망
OTT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OTT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M&A·파트너십 강화·가격 차별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 지속 - 티빙의 LG U+와의 파트너십 체결 사례('22.7) 및 KT 시즌 흡수합병 사례('22,12), 쿠팡플레이의 글로벌 스포츠 독점 중계권 확보 사례('22.7),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출시('22.11) 등 제작사 인수 등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및 타 산업 진출(넷플릭스의 게임 사업 진출 사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움직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며 제작 투자 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2년 10월 말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 'MIPCOM'에서 한국 콘텐츠의 수출계약 규모가 1,66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05.9% 증가 국내 대형 제작사의 해외 제작사 인수 또는 현지 IP 발굴·제작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전망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관객 수 및 매출액 감소가 '22년 이후 회복되고 있으나, 2020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19년 관객 수: 2.27억 명, '20,'21년: 각 0.6억 명, '22년 1~11월: 0.99억 명) 기존 영화 제작사의 드라마 시리즈 연출·제작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일본 등 현지에서 발탁·육성한 케이팝 아이돌의 데뷔를 통해 아티스트 라인업 다변화 모색 ICT 기업과의 합종연횡을 통한 디지털 기술 및 타 산업으로 확장성 강화하며 수익 모델을 더욱 다각화할 것으로 전망 - 엔터테인먼트사의 게임산업 진출, 주요 IP의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 진출 등
웹툰/웹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으로 국내 웹툰/웹소설의 인기와 함께 웹툰/웹소설 IP 기반 영상, 게임 등의 흥행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및 I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다양한 국내외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이 기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해외 지사 설립 또는 현지 관련 업체 인수를 통한 해외 진출이 지속되며 시장 범위 및 규모의 확대 전망

Source: 언론보도 종합, KOBIS(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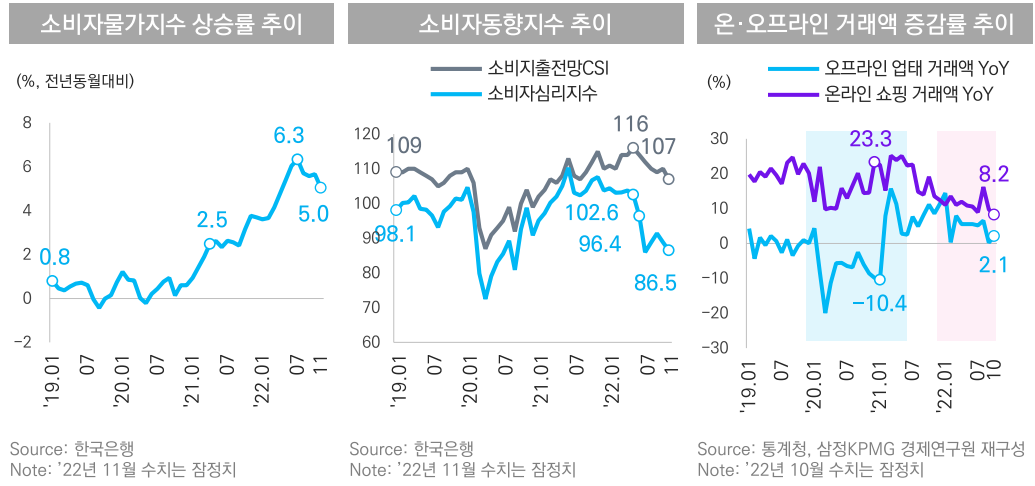
분야별 현지 발굴·제작 콘텐츠 IP 사례	
분야	출시/데뷔 앞둔 현지 발굴 IP 사례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튜디오드래곤: 'The Big Door Prize'(미국 Skydance와 합작, '23년 Apple TV+에 상영 예정), '설계자들'(미국 유니버설 인터내셔널과 합작 예정) 등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브: 'UMG 프로젝트'(미국 UMG 산하 Geffen Records와 합작) JYP: 'Nizi project 2'(일본 소니뮤직 과 합작), 'Project C'(중국), 'Project A2K'(미국 UMG 산하 Republic Records와 합작) SM: 'NCT Tokyo'(일본) 등
웹툰/웹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웹툰: 미국에서 발굴한 웹툰 '로어 올림푸스', '그레모리랜드', 대만의 '자이난다란치우', 인도네시아 '파스트리 가제' 등은 현지 흥행에 성공하여 영상화 예정

Source: 각 사, 언론보도 종합

유통 》 소비 양극화와 기저효과로 업태별 성장 여력은 차별적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영향으로 2023년 소비심리가 다소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유통업태 성장에는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임. 대내외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 및 소비 양극화 요인에 따라 오프라인은 업태별 성장 속도에 차별적 흐름을 보이는 한편, 온라인은 성장세가 둔화되며 경쟁 구도 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

2022년 유통산업 현황 및 2023년 전망



-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 및 금리 인상 지속에 소비심리 약화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년 4월 2%대로 올랐던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자출전망CSI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활성화로 온라인 채널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20% 내외의 고성장세를 통해 유통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왔음. 그러나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상당 수준의 격차를 유지해온 온·오프라인 채널 간 매출 격차 역시 '22년 하반기부터 축소되는 모습

01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위축 및 소비 양극화 심화

- 코로나19 엔데믹과 리오프닝에 따른 소매 판매 회복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나, '23년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소비 양극화 심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계층·브랜드 간 양극화 외 개개인별 일점호화 소비*가 관찰될 가능성

02 업태별 성장 속도 편차 ... 백화점·편의점 ↑

- 오프라인은 업태별 차별적 성장 패턴이 관찰될 전망
 - 외식·배달 수요를 대체하며 근거리 쇼핑 플랫폼으로 도약 중인 편의점과 고가 제품의 핵심 채널인 백화점의 긍정 성장이 기대
 -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은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심화, 물가 상승 여파 등으로 안정적 성장 여력 확보가 불투명
 - 면세점은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및 글로벌 여행 재개가 본격화될 경우,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

03 이커머스 시장의 하락 전환, 피크아웃(Peak out) 우려

- 급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오프라인으로의 수요 분산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23년에도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이커머스 경쟁 구도 재편 본격화에 대비해 성장동력 확보가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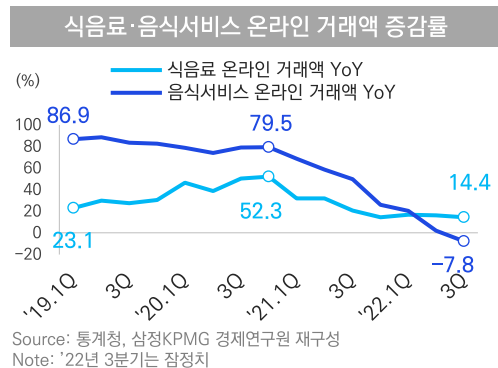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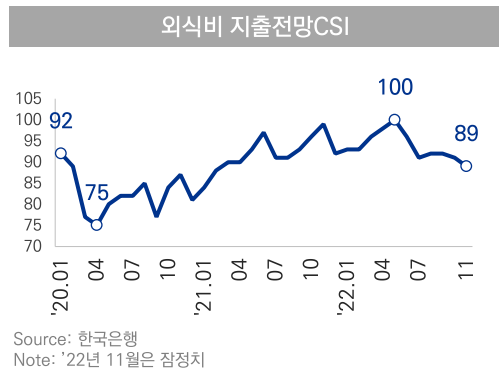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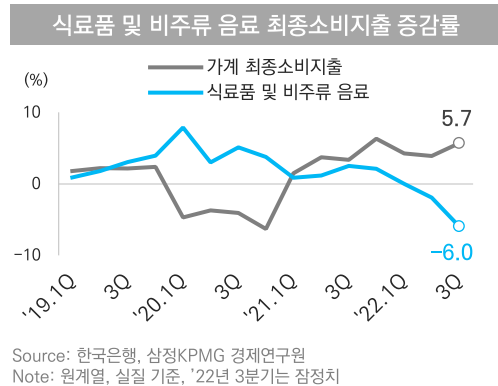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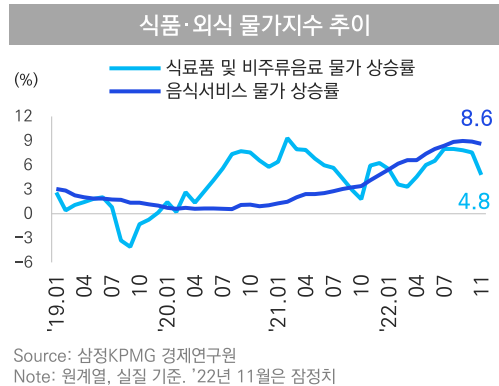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일점호화(一點豪華) 소비란 전체적으로는 소박하면서 특정한 물건이나 일에 관해서는 지출을 아끼워하지 않고 호화로움을 추구하는 소비 유형

II. 2023년 산업별 전망

☁️ 식품·외식 《 밥상물가 부담에 지갑 닫는 소비자

2023년에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가성비 식품에 수요가 편중될 가능성. 외식비·배달비 지출 자제 기조가 이어지며 외식 시장의 위축 우려가 존재하나, 인플레이션 및 방역정책 등 외식 수요에 영향 미칠 외부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2022년 식품·외식산업 현황 및 2023년 전망



팬데믹 이후 식품·음식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흐름이 지속

- '22년 들어 외식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며 '22년 11월 8.6% 기록. 물가 상승에 따라 집에서 식사하는 내식(肉食) 수요 확대 전망

식음료

- (소비 시장) 식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지속되며 식음료 소비 패턴 변화에 영향
 - 식재료비 부담 지속으로 PB(자체 브랜드)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이 높은 HMR(가정간편식), 가공식품 소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합리적 가격 중시 및 가치소비 경향이 양립하며 생활필수식품 등에는 가격·품질 경쟁력을 고려하는 반면, 자신이 가치를 느끼는 특정 제품에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도 구입하는 역설적 소비 행태가 확산할 것으로 보임
- (경영 환경) '23년 국제 곡물가 안정화 흐름이 예상되며, '22년 가격 인상을 단행한 일부 식음료 기업의 경우 수익성 개선 가능성

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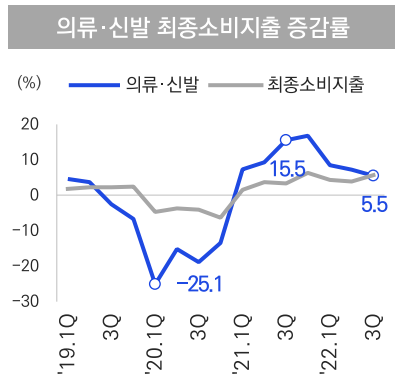
- 외식비 지출전망CSI는 '20년 4월 75로 급격히 얼어붙은 이후 '22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외식 물가 상승 영향으로 다시 움츠러들며 '22년 11월 89로 나타남.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외식비 지출 자제 기조가 이어질 우려
- 푸드 딜리버리는 팬데믹으로 급부상하며 고성장세를 기록해왔으나, '22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중. 물가상승 영향으로 '23년 배달비 부담이 가중되며 배달 수요 위축이 이어질 전망

패션 > 경기 침체에 따른 패션 수요 위축 전망

경기 변동에 민감한 패션산업의 특성상 패션 소비는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이 타 소비재산업 대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패션 소비 양극화로 럭셔리 브랜드와 중고 패션 제품 중심의 패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중간 가격대의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의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패션산업 현황 및 202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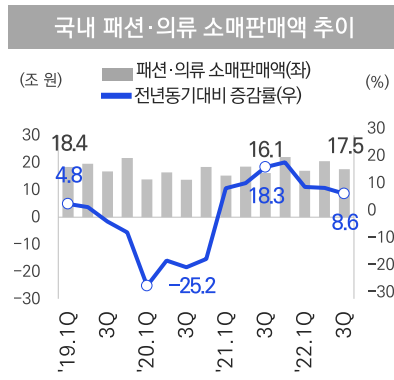
2022년 국내 패션 시장 현황



Source: 한국은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원계열, 실질 기준. '22년 3분기는 잠정치

의류·신발에 대한 지출은 '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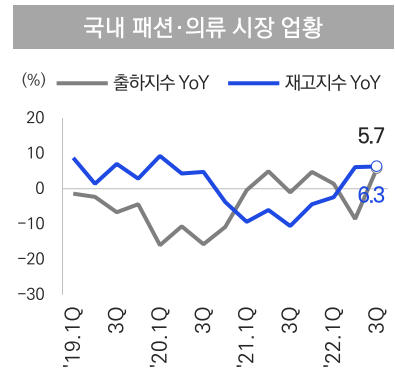
- 의류·신발 지출 증감률은 '22년 3분기 5.5% 기록



Source: 통계청
Note: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의복·신발·가방 소매판매액의 합계. '22년 3분기는 잠정치

'21년부터 이어지던 패션·의류 소매판매액 회복세는 '22년에도 지속

- '22년 3분기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8.6% 확대.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둔화했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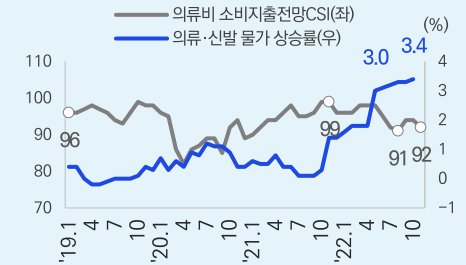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
Note: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의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 증감률. '22년 3분기는 잠정치

'22년 3분기 재고지수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며 패션·의류업계 재고 부담 우려가 높아짐

- '22년 3분기 패션·의류 제조업 재고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3% 상승한 111.1 기록

2023년 국내 패션 시장 전망

[의류비 지출전망CSI 및 물가 상승률 추이]



Source: 한국은행
Note: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임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3년 전반적인 국내 패션 소비는 '22년 대비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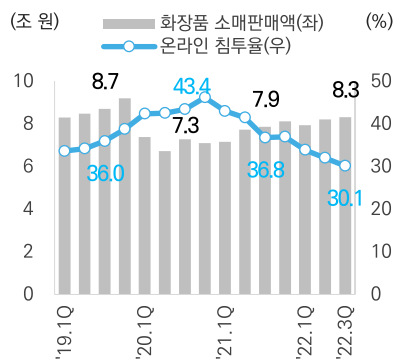
- 의류비 지출전망CSI는 '21년 11월 99에서 '22년 11월 7p 하락한 92 기록
- '22년 하반기 3% 이상의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며 물가 상승에 따른 패션 소비 위축 우려
-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패션 OEM업계에 부담 가중 우려
-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으로 의류 소비 감소 가능성. 핵심 수요국인 미국 업황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패션 OEM업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전망

☀️ 화장품 《 해외 시장 리스크 완화 시 소폭 회복 가능성

국내 화장품 소비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리오프닝 모멘텀 약화로 전년대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국내 화장품산업은 상당 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리오프닝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중심의 수출 부진은 소폭 회복이 전망되나, 중국 화장품 시장 내 경쟁 심화로 회복세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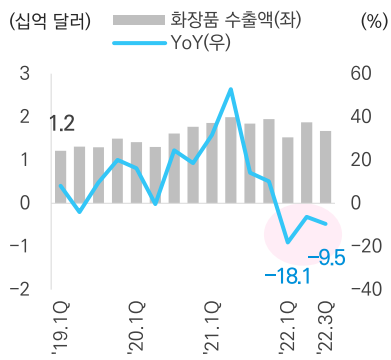
2022년 화장품산업 현황 및 2023년 전망

국내 화장품 판매액 및 온라인 침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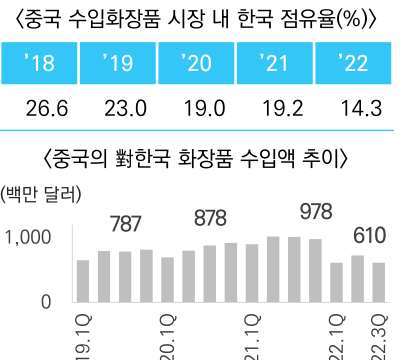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
Note: '22년 3분기는 잠정치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



Source: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 및 점유율 추이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22년 점유율은 9월까지 누계 기준

'23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전반적인 소비 위축 및 리오프닝 모멘텀 약화로 성장세 다소 둔화 전망

- 국내 화장품 소비는 일부 회복이 예상되나, 소비 양극화로 제품 포지셔닝별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수입 화장품 브랜드 및 럭셔리 화장품의 선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간 가격대의 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
- '23년에도 중국 시장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편,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공존. 해외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 다변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
- 중국 소비자의 미국·유럽 럭셔리 화장품 선호, 중국 로컬 브랜드의 부상 등으로 중국 내 경쟁 심화 전망
 - 제조 기반이 부족한 중국 로컬 브랜드 증가 및 경쟁 심화로 한국 화장품 OEM기업의 수혜 가능성
-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 수출 및 면세점 채널 실적은 '22년 대비 회복될 가능성이 제기됨
 -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될 경우 국내 면세점 채널 통한 화장품 판매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 다만, 중국 리오프닝 시점에 따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의존도 축소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북미·유럽 시장 진출이 이어질 전망

'22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년부터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9년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 중인 모습이나, 화장품 수출 실적은 부진한 상황

-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2년 3분기 누계 기준 24.5조 원으로 전년대비 7.5% 성장했으며, 오프라인 화장품 구매 수요가 늘어나며 화장품 온라인 침투율이 하락하는 모습
- 화장품 수출액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지속과 자국 제품의 소비를 선호하는 '귀차오' 문화 확산으로 '22년 급감한 모습이며,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점유율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은행 » NIM 상승에도 대출 증가세 위축 전망, 건전성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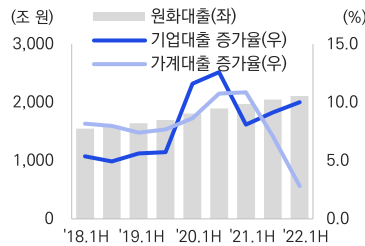
금리 상승으로 국내 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이 개선될 수 있으나, 이자 부담 등에 따라 민간 대출 증가세 둔화 또는 소폭 감소 전망. 이자순수익 정체와 비이자이익 축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손비용 등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이 높고, 온라인 예금상품/대환대출 플랫폼 등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건전성 관리 대응 필요

2022년 은행산업 현황과 2023년 전망

대출 증가세 둔화 전망

- '22년 상반기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은 2,109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 기업대출 증가율은 '21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과 직접금융 시장 위축 등으로 '23년 기업대출 증가세 정체 전망
- 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22년 3% 미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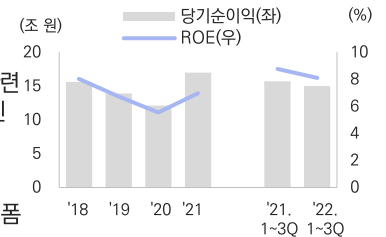
[국내 은행 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수익성 소폭 감소 전망

- '22년 1~3분기 중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 ROA와 ROE 모두 소폭 하락. 이는 이자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관련 손실 등 비이자이익 축소와 대손비용 증가 등에 기인
- 대출 수요 정체, 비이자이익 축소 및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등으로 '23년 수익성 약화 가능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대환대출 플랫폼 등 플랫폼 경쟁 및 기업대출 부문 경쟁도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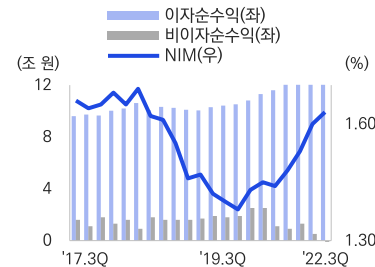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추이]



NIM 상승, 이자순수익 정체 전망

- NIM은 '20년 4분기 역대 최저치(1.38%) 기록 후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여 빠르게 상승
- 대출채권 증가세와 NIM 상승으로 국내 은행 이자순수익 증가세 시현
- '23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NIM의 개선세 대비 대출자산 증가세 둔화로 이자순수익 정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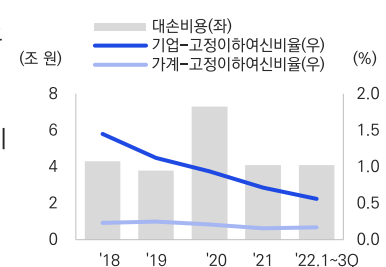
[국내 은행 순수익의 구조 및 NIM 추이]



대손비용 증가와 건전성 관리 필요

- '21년 1~3분기 중 대손비용은 4.1조 원으로 향후 경기하락 가능성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큰 폭(71.8%) 증가
-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경기 하락 및 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으로 '23년 대손비용 증가 등 건전성 관리 필요

[국내 은행 대손비용 및 고정이자여신 비율]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고정이자여신비율의 경우, '22년 2분기 말 기준

II. 2023년 산업별 전망



증권 》 수익성 하방 압력 및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와 건전성 관리

2022년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채권/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증권사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등 전 부문 실적 크게 둔화. 2023년 경기 둔화·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국내 증권사 수익성 하방 압력이 높으며,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부동산PF 부실 위험성 등 리스크·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2022년 증권산업 현황과 2023년 전망

<p>주식 시장 약세 등 경영환경 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채권 등 자산시장 전반 가격 하락 '23년 미국 FOMC*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최소 5% 이상 전망)과 경기 침체, 국내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약세장 지속과 변동성 확대 전망 다만, 2분기 이후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신호 및 선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라 제한적 반등 가능 	<p>수익성 하방 압력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 자기매매 변동성 증대, IPO 시장 위축 등으로 수익성 하락 '23년 금리 인상 지속, 채권가격 하락과 주식시장 회복 지연 및 부동산 및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브로커리지 및 채권평가 손실 등에 따른 자기매매, IPO 부진에 따른 IB 실적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 	<p>[유가증권시장 지수 및 거래대금 추이]</p> <p>[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추이]</p>
<p>브로커리지 실적 부진 및 자기매매 수익 변동성 증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등 전반적으로 순이익 감소, 특히, '22년 2~3분기 자기매매 실적 급등락, 3분기 중 자금시장 경색 등에 따라 IB 수익 크게 감소 '23년 주식거래 둔화 등으로 브로커리지 실적 감소 및 시장변동성에 따른 자기매매 수익 변동성 증가 전망 	<p>리스크·건전성 관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개 증권사 총 부동산 익스포저는 '22년 3월 말 기준 47.9조 원, 우발채무는 30.4조 원 육박 부동산 가격 조정 시 증권사 부동산PF 대출 회수 제약 및 유동성 문제 발생 위험 총당금 적립률이 낮은 중소증권사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 부실 가능성 상존 부동산 및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시장/운용리스크 확대 대비 및 건전성 관리 필요 	<p>[국내 증권사 수익구조 추이]</p> <p>[국내 24개 증권사 총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 ('22년 3월 기준)]</p>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NICE 신용평가('22.7.27), '부동산 익스포저, 증권사 신용위험 뇌관이 될 것인가',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카드 》 자금조달 비용 상승·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민간소비 회복 속도 둔화에 따라 국내 카드구매 규모는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카드론 이용 위축, 이자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 전망.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산업 내 경쟁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

2022년 신용카드산업 현황과 2023년 전망

<p>민간소비 카드구매 둔화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카드구매액 증가세가 양호하게 시현되고 있음 다만 물가상승을 압력으로 실질구매력 저하,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23년 카드구매 이용액은 증가 속도가 완화된 것으로 예상 	<p>[국내 카드구매 이용액 추이]</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카드구매 이용액 추이] (조 원)</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신용판매(좌)</th> <th>체크카드(좌)</th> <th>카드구매 증감률(우)</th> </tr> </thead> <tbody> <tr> <td>'19</td> <td>~650</td> <td>~250</td> <td>~10%</td> </tr> <tr> <td>'20</td> <td>~650</td> <td>~200</td> <td>~8%</td> </tr> <tr> <td>'21</td> <td>~750</td> <td>~250</td> <td>~12%</td> </tr> <tr> <td>'22(p)</td> <td>~850</td> <td>~300</td> <td>~15%</td> </tr> </tbody> </table>	연도	신용판매(좌)	체크카드(좌)	카드구매 증감률(우)	'19	~650	~250	~10%	'20	~650	~200	~8%	'21	~750	~250	~12%	'22(p)	~850	~300	~15%	<p>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상반기 국내 신용카드사 ROE는 4.4% 수준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상회 '23년 금리 상승기 및 리볼빙 서비스 설명 강화, DSR* 관련 선제적 리스크 관리 요구 등으로 카드론 중심 수익 위축 지속 전망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 증가 속 '23년 카드 적격비용 산출체계 개편안 발표 모니터링 필요 	<p>[국내 카드사 수익 구조 및 ROE 추이]</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카드사 수익 구조 및 ROE 추이] (조 원)</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카드구매 관련 수익(좌)</th> <th>카드대출 관련 수익(좌)</th> <th>ROE(우)</th> </tr> </thead> <tbody> <tr> <td>'19.1H</td> <td>~4.5</td> <td>~3.5</td> <td>~4.5%</td> </tr> <tr> <td>'20.1H</td> <td>~4.5</td> <td>~3.5</td> <td>~4.5%</td> </tr> <tr> <td>'21.1H</td> <td>~5.5</td> <td>~4.5</td> <td>~4.5%</td> </tr> <tr> <td>'22.1H</td> <td>~5.5</td> <td>~4.5</td> <td>~4.5%</td> </tr> </tbody> </table>	연도	카드구매 관련 수익(좌)	카드대출 관련 수익(좌)	ROE(우)	'19.1H	~4.5	~3.5	~4.5%	'20.1H	~4.5	~3.5	~4.5%	'21.1H	~5.5	~4.5	~4.5%	'22.1H	~5.5	~4.5	~4.5%
연도	신용판매(좌)	체크카드(좌)	카드구매 증감률(우)																																								
'19	~650	~250	~10%																																								
'20	~650	~200	~8%																																								
'21	~750	~250	~12%																																								
'22(p)	~850	~300	~15%																																								
연도	카드구매 관련 수익(좌)	카드대출 관련 수익(좌)	ROE(우)																																								
'19.1H	~4.5	~3.5	~4.5%																																								
'20.1H	~4.5	~3.5	~4.5%																																								
'21.1H	~5.5	~4.5	~4.5%																																								
'22.1H	~5.5	~4.5	~4.5%																																								
<p>자금조달 환경 악화에 유동성·건전성 관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11월 말 여신전문금융사채권 금리는 6.0%를 기록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 카드사는 자금조달을 다변화하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유동성,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 점증 	<p>[국내 여신전문금융사채권 금리 및 카드사 차입금 규모 추이]</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여신전문금융사채권 금리 및 카드사 차입금 규모 추이]</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차입금(우)</th> <th>여전채 금리(좌)</th> </tr> </thead> <tbody> <tr> <td>'19.1</td> <td>~10</td> <td>~2%</td> </tr> <tr> <td>'20.1</td> <td>~10</td> <td>~2%</td> </tr> <tr> <td>'21.1</td> <td>~10</td> <td>~2%</td> </tr> <tr> <td>'22.1</td> <td>~30</td> <td>~4%</td> </tr> <tr> <td>'22.11</td> <td>~45</td> <td>~6%</td> </tr> </tbody> </table>	연도	차입금(우)	여전채 금리(좌)	'19.1	~10	~2%	'20.1	~10	~2%	'21.1	~10	~2%	'22.1	~30	~4%	'22.11	~45	~6%	<p>산업 내 경쟁강도 확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핀테크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카드사 공동 간편결제 서비스 '오픈페이' 출시가 불투명한 가운데, 애플페이가 한국 진출을 예고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빅테크 및 핀테크와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드사는 부수·경영업무, 신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p>[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 이용 비중 추이]</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 이용 비중 추이] (%)</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카드사</th> <th>핀테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20.1Q</td> <td>~45%</td> <td>~55%</td> </tr> <tr> <td>'21.1Q</td> <td>~40%</td> <td>~60%</td> </tr> <tr> <td>'22.1Q</td> <td>~35%</td> <td>~65%</td> </tr> </tbody> </table>	연도	카드사	핀테크기업	'20.1Q	~45%	~55%	'21.1Q	~40%	~60%	'22.1Q	~35%	~65%										
연도	차입금(우)	여전채 금리(좌)																																									
'19.1	~10	~2%																																									
'20.1	~10	~2%																																									
'21.1	~10	~2%																																									
'22.1	~30	~4%																																									
'22.11	~45	~6%																																									
연도	카드사	핀테크기업																																									
'20.1Q	~45%	~55%																																									
'21.1Q	~40%	~60%																																									
'22.1Q	~35%	~65%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국내 신용카드사는 전업 카드사 8개 대상 기준, '22년 국내 카드구매 이용액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추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생명보험 《 고금리 저축성 보험 경쟁 속 금리·주가 변동성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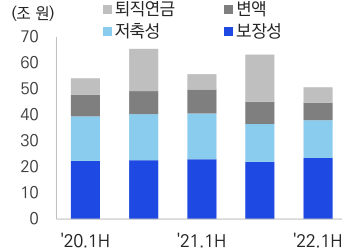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생명보험 수요가 둔화되면서 제한적인 성장 전망. 고금리 저축성 보험 경쟁 심화로 이차역마진 우려가 확대. 2023년 1월 IFRS17 시행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자금시장 경색 환경에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점증

2022년 국내 생명보험업 현황과 2023년 전망

보장성 보험 소폭 성장 전망

- '22년 상반기 보장성 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소폭 증가했으나, 저축성 보험은 예금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 상실, 변액 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으로 판매 둔화가 나타남
- '23년 저축성 보험과 변액 보험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 반등 시 변액 보험 판매 회복 가능성 있음. 보장성 보험은 소비 여력 축소로 제한적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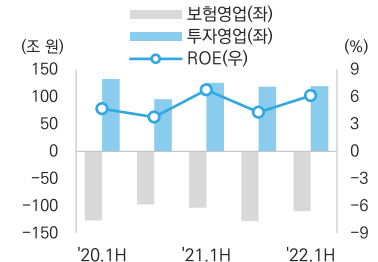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추이]



수익성 둔화 가능성

- '22년 상반기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과 배당수익 감소 등으로 축소. 보험료 수익 감소로 보험영업손실 또한 확대
- '23년 IFRS17 시행으로 이익 개선이 가능하나 소비여력 둔화, 금리/환율상승, 증시 부진이 이어질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 투자 손실 및 보증준비금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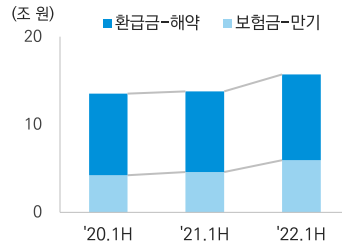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수익성 추이]



저축성 보험 환급 증가세와 고금리 경쟁 심화

-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의 만기 도래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해약이 늘어나면서 저축성 보험 중심으로 지급금액 증가('22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만기 보험금 29.7%, 해약 환급금 6.1% 증가)
- 이로 인해 고금리 저축성 보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금리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이차역마진이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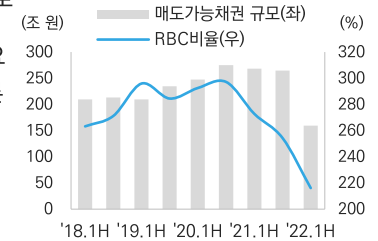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해약 및 만기 규모]



금리 및 주가 변동성, 유동성 등 모니터링

- 생명보험사의 매도가능채권 규모는 금리 상승으로 감소세, LAT¹⁾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RBC²⁾ 비율은 하락 추세로 재무건전성 관리 중요
- 금리/주가 변동성 확대, 자금시장 경색 등에 따른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필요
- KB라이프생명 출범 등으로 시장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채널 다변화 고려 시 생명보험사들의 GA³⁾ 채널 활용 확대 예상

[국내 생명보험사 매도가능채권 및 RBC 비율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LAT(Liability Adequacy Test,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2)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 3) GA(General Agency, 법인보험대리점)

II. 2023년 산업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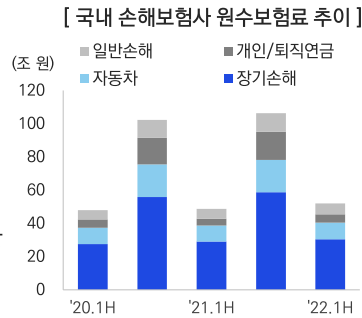
☁️ 손해보험 《 손해율 반등, 경기 둔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며 수익성 개선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인구 이동량 및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경제활동 본격 재개 시 손해율 상승 가능성 존재.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자산과 연체 등 건전성 관리와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인 채널 활용 모색이 중요

2022년 국내 손해보험업 현황과 202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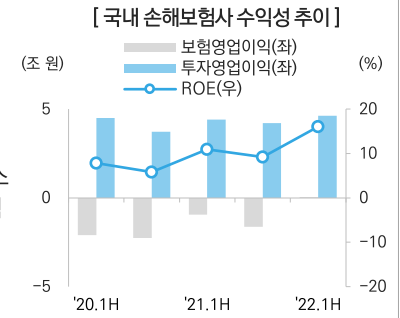
원수보험료 성장률 유지 전망

- '22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일반손해보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 보험료 인하 및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자동차보험 성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손해보험은 신규 위험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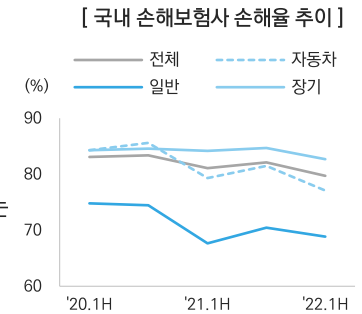
수익성 다소 약화 전망

- '22년 상반기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손익 흑자 전환, 외화환산이익의 증가 등으로 투자영업이익 개선
- '23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보험영업이익 감소 여지 있으나, 실손보험 요율 인상, 일반손해보험 수요 증가 등은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예상
-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 등에 따라 투자영업이익 변동성이 확대되어 수익성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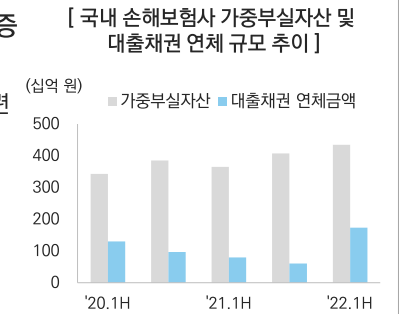
보험료 인하 압박 속 손해율 상승 가능성

- '22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교통량 감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했으며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청구 일부 정상화 등으로 장기손해보험 손해율도 개선
- 손해율 하락에 따라 보험료 인하 압박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구 이동량 및 대면 접촉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 상존



건전성 관리 및 디지털 플랫폼 활용 중요성 점증

- 가중부실자산과 대출채권 연체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PF 및 보험약관대출 관련 부실위험 등을 유의해야 하며, '23년 IFRS17 시행 대비 자본 확충 필요
- 상품 특화 보험사 진입 허용 등 규제 완화 추진으로 경쟁 심화 환경 속에서 차별화 노력과 온라인 플랫폼 채널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III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3년은 경제·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와 회복의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국내 기업은 산업별 시장 및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시장 공략 및 디지털 전략 강화, ESG 전략 수립 등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긍정적』 전망 산업






	2023년 전망	대응 전략
<p>휴대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저효과로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폼팩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 등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상품군의 시장 규모 확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등 주요 시장 규모 확대 지역을 타깃으로 한 공급 전략 수립 ·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되는 신규 상품군의 기술 개발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등으로 발생한 대기 수요가 '23년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 지속되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국가의 봉쇄 정책, 지정학적 문제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자동차 OEM의 적극적인 북미 지역 투자 검토가 요망 ·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진출 예정인 만큼 내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도 필요
<p>정유·화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유사는 공급부족 해소, 국제유가가 하락, 강달러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축소 예상 · 에틸렌 순증설 물량 감소로 국내 화학산업 내 수급 밸런스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3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 업황 회복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변동, 팬데믹 및 에너지 안보 정책 변화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노력 필요 · 스페셜티보다 필수재에 활용되는 범용 제품의 시장 개선될 전망에 따라 범용 화학제품 중심의 판매전략 수립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긍정적」 전망 산업

	2023년 전망	대응 전략
 에너지·유틸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에너지 수요는 '23년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정부의 강력한 보급정책과 신규 설비 진입 등의 효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이며, 가스는 유례없는 높은 가격으로 수요 감소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석탄 가격 강세와 탄소 가격 부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잃은 석탄 발전 비중의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 •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가스 수입국 다각화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필요
 제약·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만료로 K-바이오시밀러의 경쟁 본격화 • 러-우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코로나19 회복세로 인한 진단키트 수요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 필요 •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단가 하락 압박에 대한 수익성 방어 전략 검토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여객은 국가 간 여행 제한 조치 완화와 중단되었던 여객 노선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항공화물 시장은 공급 대비 수요의 급감, 인플레이션, 해상운임 급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및 자동화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의사결정과정 지원과 고객경험 및 운영효율성 향상 모색 • 항공화물 수급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여객기를 임시로 화물기로 활용하는 등 기종의 운용 유연성 향상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세 예상 •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를 보유한 프리미엄 호텔, 가성비를 내세우는 중소형호텔 등의 활성화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와 한국의 역사, 자연 등을 매개로 한 핵심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실시 •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온라인 객실 판매 증가를 위한 온라인 판매 채널 점검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신규大作 출시를 통한 성장 기대되며, 콘솔 게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국내 게임산업 플랫폼이 더욱 다변화될 전망 • 서브컬처 등 다채로운 장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여 장르 다양성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지역·장르 다양성 확대를 위한 투자 및 M&A 등 다양한 수단 고려 • 시장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게임 IP 개발 및 유통 전략을 모색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긍정적』 전망 산업

	2023년 전망	대응 전략
<p>미디어 ·엔터테인먼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은 해외 현지에서의 콘텐츠 IP 발굴·제작 등 현지화를 추진하며 시장 외연 확대를 모색 • 저명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타 산업으로 적극 확장하며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트렌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 맞춤형 콘텐츠 IP 발굴 및 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 노력 • 타 산업으로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사 ICT 기술 역량 및 콘텐츠 IP에 대한 팬덤 구축·관리 역량 강화
<p>유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여력 위축으로 유통업태는 전반적으로 제한적 성장세 보일 것 • 오프라인은 업태별 차별적 성장 패턴이 나타나며, 편의점·백화점 위주 실적 개선 가능성. 면세점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회복 기대감. 온라인의 성장세 둔화 이어지며 경쟁 구도 재편 지속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 위한 리포지셔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재도약 • 온라인은 명확한 통합적 라인 생태계 구축 등으로 시장 지배력 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 위한 전략 수립 통해 구조적 성장 도모
<p>화장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화장품 소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 • 해외 화장품 시장과 관련한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 예상. 중국 리오프닝 시 수출 및 면세점 채널 실적은 소폭 회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화장품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위해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제품 기술력을 확보 • 화장품 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해외 시장 비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
<p>손해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본격 재개 시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 상승 가능성 • 실손보험 요율 인상, 일반손해보험 수요 증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보험 성장 약화, 투자영업이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제한적 성장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PF 등 부실위험 유의하며 자본 확충, 건전성 관리하며 IFRS17, K-ICS* 본격 시행 대비 • 상품 차별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경쟁력 확보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K-ICS(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부정적』 전망 산업

	2023년 전망	대응 전략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수요 약화에 따른 시장 축소, 공급 과잉으로 시장 규모 축소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 시장 규모, 공급망 및 밸류체인 변화 등의 국제 정세 변화 영향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구축 글로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GVC(Global Value Chain) 재설계 및 주요국 반도체 육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디스플레이산업의 다운사이클에 이어, 엔데믹을 바라보는 '23년 글로벌 시장 규모 소폭 확대에 그칠 전망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LCD 시장에서 '22년 철수·축소 동향을 보인 데 이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또한 OLED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OLED 기술 고도화,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라인업 등 새로운 경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다수 글로벌 기업들로 공급망을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 긴축정책, 중국의 저성장, 러-우 침공으로 인한 유럽 경기 둔화 등으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저성장에 그칠 것 국내 물가 및 금리 인상, 조선업 제외 대다수 수요산업 부진 등 전반적 내수 여건 악화로 '23년 국내 철강 수요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산업 회복 지연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동반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철강재 개발에 집중할 필요 '그린철강'을 위해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계, 효율적인 리사이클링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함
조선·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영향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다만 친환경 선박의 수요는 여전히 상존 해운산업은 세계 경기 둔화, 고금리 기조, OPEC+ 감산합의 등 요인으로 물동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규제에 발맞춰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의 기술개발 및 전환을 적극적 추진 머스크, MSC 등 해외 선진 해운사를 벤치마킹하여 종합물류 서비스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 및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고려
식품·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일부 기업의 경우 곡물가 하락에 따른 수혜 전망 외식비·배달비 지출 자제 경향으로 외식 시장은 다소 위축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성비·가치소비 수요 공략 위한 세그멘테이션 전략 필요 푸드테크·피지컬 외식 매장 구축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딜리버리 분야의 확장성을 위해 버티컬 전략을 통한 수익 다각화 전략 수립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부정적』 전망 산업

	2023년 전망	대응 전략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로 인한 패션 수요 위축과 함께 패션업계 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해외 주요 국가의 패션 소비 위축으로 패션 OEM 업계의 부담 증가. 미국 패션 기업의 오더 감소로 패션 OEM 기업의 수주 우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 리스크 대비의 일환으로 패션 기업은 원활한 재고 운용을 통한 재고 부담 완화를 모색할 필요 소비 양극화에 대응하여 패션 시장 내 자사 브랜드 포지셔닝을 재점검하고 브랜드 전략 추진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NIM 개선세 대비 대출 증가 둔화 등에 따른 이자순수의 정체와 비이자이익 축소, 대손비용 상승 압력 온라인 예금상품/대출대출 플랫폼 등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건전성 관리 대응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차주 등 전반적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디지털/인재/사업 전략 재정비, 협업·제휴 모색, 효율적 비용 집행 고려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소비 회복 속도 둔화에 따라 카드구매 규모 완만한 성장세 금리 인상, 채권 발행시장 경색, 자금조달 환경 악화 및 산업 내 경쟁 심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조달 다변화와 유동성, 재무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며 취약차주 부실 위험 모니터링 핀테크와의 협쟁 전략 재설정, 부수업무,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경쟁력 확보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성 보험은 소비 여력 축소로 제한적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으로 저축성 보험 및 변액 보험은 판매 축소 예상 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채권 규모 감소세, 고금리 경쟁 심화되며 이차역마진 우려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주가 변동성 확대, 자금시장 경색 등에 따른 리스크 및 유동성 관련 적극적인 관리 질병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에 맞춘 상품 개발, 제판분리 확대에 따른 GA 채널 활용 방안 마련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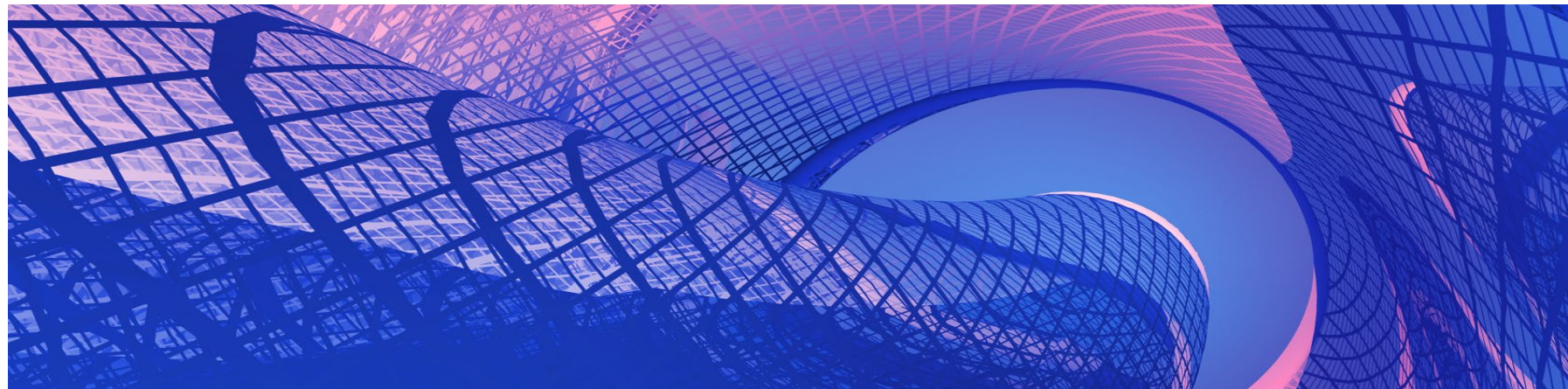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3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부정적」 전망 산업

	2023년 전망	대응 전략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건설은 정부 SOC 예산 축소와 조달 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 해외 건설의 경우 유가 상승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의 투자가 활발해져 '23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증가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글로벌 건설 시장의 생존을 위한 BIM(건설정보모델링), 클라우드 등의 협업 디지털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 확대 •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 인프라 전환에 대한 선진적인 경쟁력 확보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채권/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 전반적 약세로 영업 환경 악화 • 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따른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확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변동성 헤지 운용 역량,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특히, 상반기 중 시장 불안 요소를 고려한 리파이낸싱 및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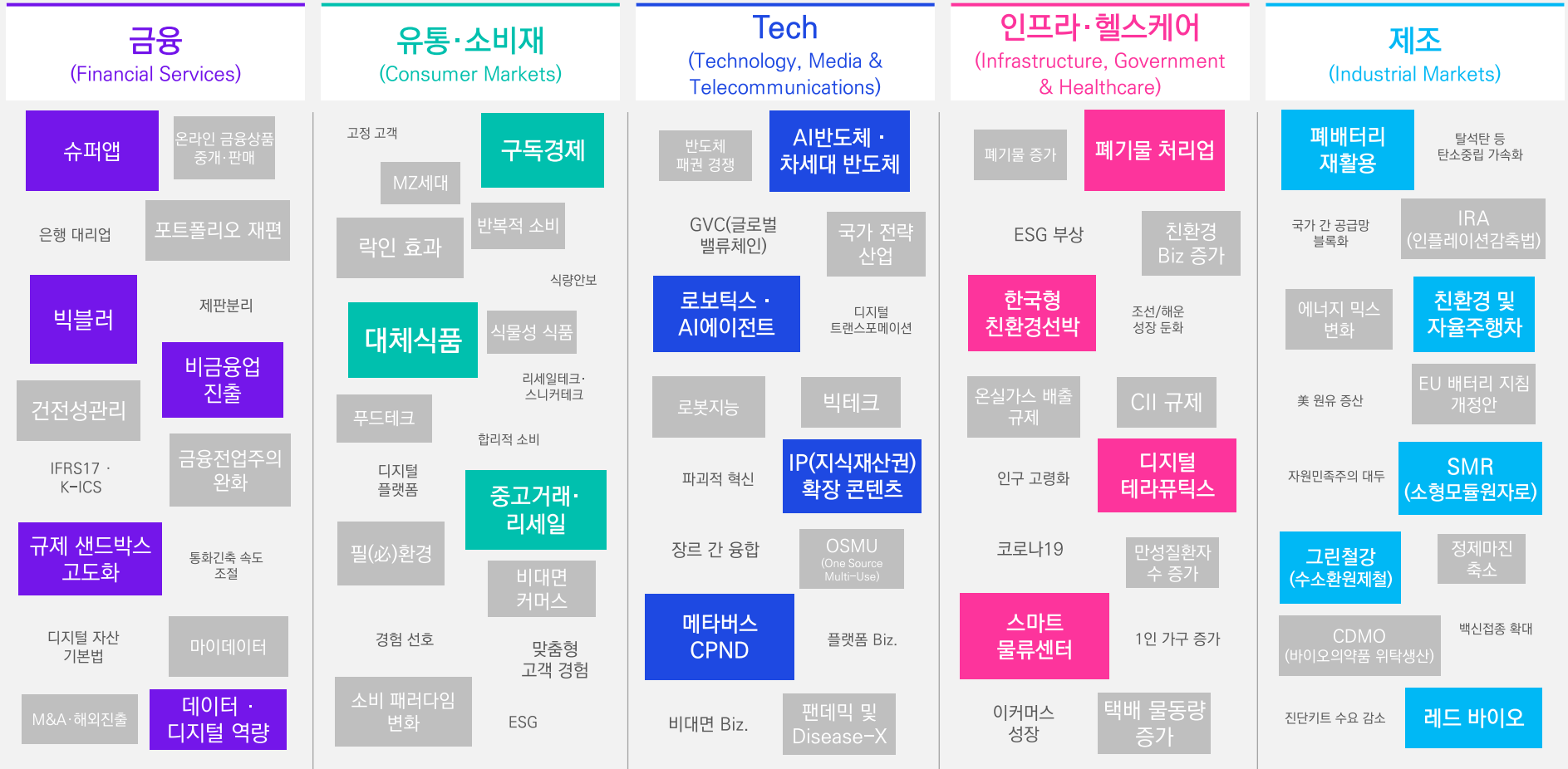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IV

Appendix

2023년 산업별 주요 키워드

경제·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이후 도래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비즈니스 전환과 경영 전략 수립 필요



금융산업 주요 이슈 & 핵심 키워드

금융산업에서는 슈퍼앱으로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비용 효율화, 금융그룹 중심의 자회사 경쟁력 강화 등이 이슈로 부상

금융산업 주요 이슈

- 비대면 거래와 초개인화 금융 수요 등에 따른 플랫폼 경쟁 가속화 및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판매업 허용
- 슈퍼앱 전략 가속화 -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은행), 헬스케어 금융플랫폼(보험), 생활밀착금융플랫폼(카드) 등 구현을 위한 금융전업주의 완화 기조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영업 효율화
- 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수익 구조 고도화

- 주요 대형 금융그룹 등을 중심으로 종합금융 추진 및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
- 저출산/내수시장 축소 가능성 부상
- 리오프닝에 따른 해외 진출 전략 재검토

핵심 키워드

<h3>1</h3>	<h4>종합금융플랫폼 등을 위한 신사업 발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신탁, 중고차, 반려동물, 음식 주문 등 중개, 항공·호텔 예약, 쇼핑, 이사 등 비금융업 진출 모색 •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통한 혁신 사업 타진 	
<h3>2</h3>	<h4>판매 채널/고객접점 고도화</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캐피탈 등 GA 협력 및 출자 확대 • 비대면 채널 및 대면 채널 융합/재편을 통한 고객 접점 경쟁력 확보 	
<h3>3</h3>	<h4>디지털·데이터 역량 확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비교/대환대출 서비스, 데이터/AI 기반 기술, 신기술 활용 언더라이팅 핀테크 주목 • 낮은 밸류에이션 활용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투자 및 협업 방안 모색 	
<h3>4</h3>	<h4>포트폴리오 재편 및 비용 효율화, 리스크 관리</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존 전략 모색 • 유동성·신용 리스크 대응 방안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 대형 금융그룹 등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비핵심사업 자산매각 가능성 주목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유통·소비재산업 주요 이슈 & 핵심 키워드

유통·소비재산업에서는 소비 방식 다변화, 가치소비·필(必)환경 중시 등 소비 시장에서 변화가 관찰되며 디지털 구독경제 · 대체식품 · 중고거래 시장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

유통·소비재산업 주요 이슈

- 소비 세대 전환, 소유 방식 변화 등 소비 트렌드가 급변
- 소유보다 경험에 목적을 둔 소비 패러다임 변화가 관찰
- ESG·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필(必)환경 트렌드가 확산
-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직성·투명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구매 의사를 결정
- 비대면 커머스 채널 기반의 제품·서비스 제공 확대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맞춤형 고객 경험 제공의 중요성 증대

핵심 키워드

1 디지털 구독경제

-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거래가 기반이 되어 고정고객 확보가 용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1) 락인(Lock-in) 효과 제고, 2)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



2 대체식품

- 유통·F&B 기업,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해결책으로서 주목하며 핵심 기술 확보 경쟁 본격화
-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1년 1,840만 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25년에는 2,260만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3 리세일(Resale) · 중고거래 시장

- MZ세대 중심의 스니커테크·리세일테크 부상
- 국내 중고거래 시장 '08년 4조 원 → '21년 24조 원으로 6배 성장



Source: Statista, KISA,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Tech산업 주요 이슈 & 핵심 키워드

Tech산업에서는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섹터 및 소비자 라이프 변화에서 기회 모색이 가능한 섹터 부각

Tech산업 주요 이슈

-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기술을 Enabler로 삼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에 박차를 가함
-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기술 발굴 및 기술 보유 기업 M&A 니즈 지속
- 칩(Chip) 4 동맹 추진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 중시되는 반도체 중요도 부각
-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 차세대 반도체 육성 전략 추진
- 소비자의 비대면 라이프 트렌드가 팬데믹 기간 동안 확산되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근원적 변화
- 온·오프라인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고객여정의 연속성 강화 기술 부상

핵심 키워드

1 AI반도체 · 차세대 반도체

- AI(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R&D에 기업 투자
- 한국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2년 8월)



2 메타버스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 비대면 디지털 비즈니스의 급성장에 따라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여 고객경험(CX) 고도화



3 로봇틱스 · 시에이전트

- 제조용·서비스용 로봇과 부품,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빠른 성장 및 한국 기업 투자 활성화



4 IP(지식재산권) 확장 콘텐츠

- 웹툰·웹소설의 영상화, 장르 간 융합 확대에 용이한 콘텐츠 부각
- 확장성 높은 IP의 OSMU(One Source Multi-Us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인프라·헬스케어산업 주요 이슈 & 핵심 키워드

인프라·헬스케어산업에서는 친환경 규제와 물류 공급망 교란이 생기며 폐기물 처리업, 친환경선박, 스마트 물류센터, 디지털 테라퓨틱스산업이 부상

인프라·헬스케어산업 주요 이슈

- 건설폐기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 증가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적 비즈니스 증가

-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며 각 국항만에서의 체선·체화 현상 심화
-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의 통합한 물류플랫폼 구축, 공급망의 디지털화

- 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EEX와 CII 규제가 '23년부터 시행 예정
- 해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도입에 대한 전략에 주목

Not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

핵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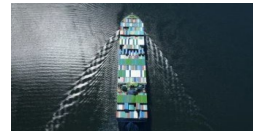
1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 증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25년에 23조 7,000억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기업의 ESG 경영을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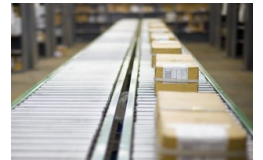
2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 '22년 1~8월,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비중 전세계 61%
- 국내 LNG-수소 혼소 엔진 기술력은 경쟁국을 압도



3 스마트 물류센터

- '20년 택배 물동량 전년대비 20.9% 증가한 33.7억 박스
- 1인 가구·이커머스 성장으로 물류산업 성장세 지속
-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입지조건 극복 및 가치 제고



4 디지털 테라퓨틱스

- '23년 3,000억 원이 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할 전망
- 만성질환 관리에서 항암 치료까지 기술 진보 중
- 기존 신약 비교 개발 기간과 비용의 경쟁력 확보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주요 이슈 & 핵심 키워드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공급량 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 준수 등 핵심이슈에 직면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폐배터리, 저탄소 에너지가 부상

제조업 주요 이슈

- 리튬, 니켈,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자원민족주의 대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제한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등 자국 산업 보호 위한 각종 규제 등장
- 국가 단위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블록화

- 'EU 배터리 지침 개정안' 비롯,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규제·정책 도입
- 탄소 다배출 업종인 발전, 철강업계 등은 ESG 경영 위해 수소 활용에 주목

핵심 키워드

1 전기차 배터리·폐배터리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연평균 36.7% 성장
- '22년 국내 3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총 25.9%
- 전기차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 시장도 급속성장 전망



2 저탄소 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수소)

-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35년 150조 원
- 글로벌 수소 생산 시장은 '25년 1,500억 달러로 성장
- 한국은 '20년 수소법 제정 및 수소경제로 전환 이행 중



3 친환경 미래 자동차

- 글로벌 친환경차 연평균 36% 성장, '25년 3.6천만 대
- 국내 친환경차 '30년 신차 판매량의 20~30% 전망
- 자율주행차(레벨3) '30년 신차 판매량의 50% 예상



4 레드 바이오

- 레드 바이오는 바이오의약·바이오서비스 중심의 시장
- 글로벌 바이오의약 시장 '23년 3,735억 달러로 확대
- 글로벌 바이오서비스 시장 연평균 12.8%로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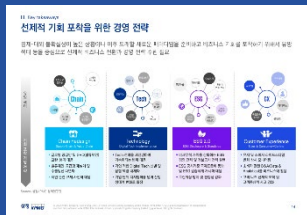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See other Business Report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발간 불확실성의 시대, 산업별 주목 받는 섹터는?



Contents

- I. 불확실성의 시대, 경영환경 변화
- II. 5대 산업별 직면 이슈 & 핵심 키워드
 - 금융: 디지털·데이터 역량 확보, 판매 채널 고도화, 종합금융플랫폼 등을 위한 신사업 발굴
 - 소비자: 디지털 구독경제, 대체식품, 리세일(Resale)·중고거래
 - Tech: 시반도체 · 차세대 반도체, 메타버스 CPND, 로보틱스 · 시에이전트, IP 확장 콘텐츠
 - 인프라·헬스케어: 폐기물 처리업, 한국형 친환경선박, 스마트 물류센터, 디지털 테라퓨틱스
 - 제조: 전기차 배터리·페배터리, 저탄소 에너지, 친환경 미래 자동차, 레드 바이오

III. Key takeaways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2022년 10월 발간 2022 글로벌 CEO 설문조사 리포트 KPMG 2022 CEO Outlook



Contents

KPMG는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CEO의 인사이트와 경영 우선순위 변화를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 KPMG, 글로벌 CEO 1,325명 대상 경영환경 및 경제 성장 전망 조사
- CEO 85% “향후 3년 기업 성장 낙관적”
- CEO 76% “경기 침체 대비해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기업 회복력 ‘자신’”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조원덕

부대표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자동차산업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제조·건설산업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